

부모를 위한 그림 이야기
STORY BOOK

그림으로 말하는 성경

와! 성경이 살아 있다

See with Me Bible
The Bible Told in Pictures

글_이은미



구약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창세기 1:1-2:3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2-3장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창세기 6-9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출애굽기 2-12장

위대한 탈출 출애굽기 14장

40년 동안의 광야생활 출애굽기-민수기-신명기

여호수아와 여리고 전투 여호수아 6장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사무엘상 17장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다니엘 6장

물고기 배 속의 요나 요나 1-3장

신약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무럭무럭 자라셨어요 누가복음 2:52

요한이 세례를 주었어요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의 생애 마태복음-마가복음-누가복음-요한복음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착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25-37

잃어버린 어린 양 누가복음 15:1-7

열 명의 문둥병자 누가복음 17:11-19

잃었다 다시 얻은 아들 누가복음 15:1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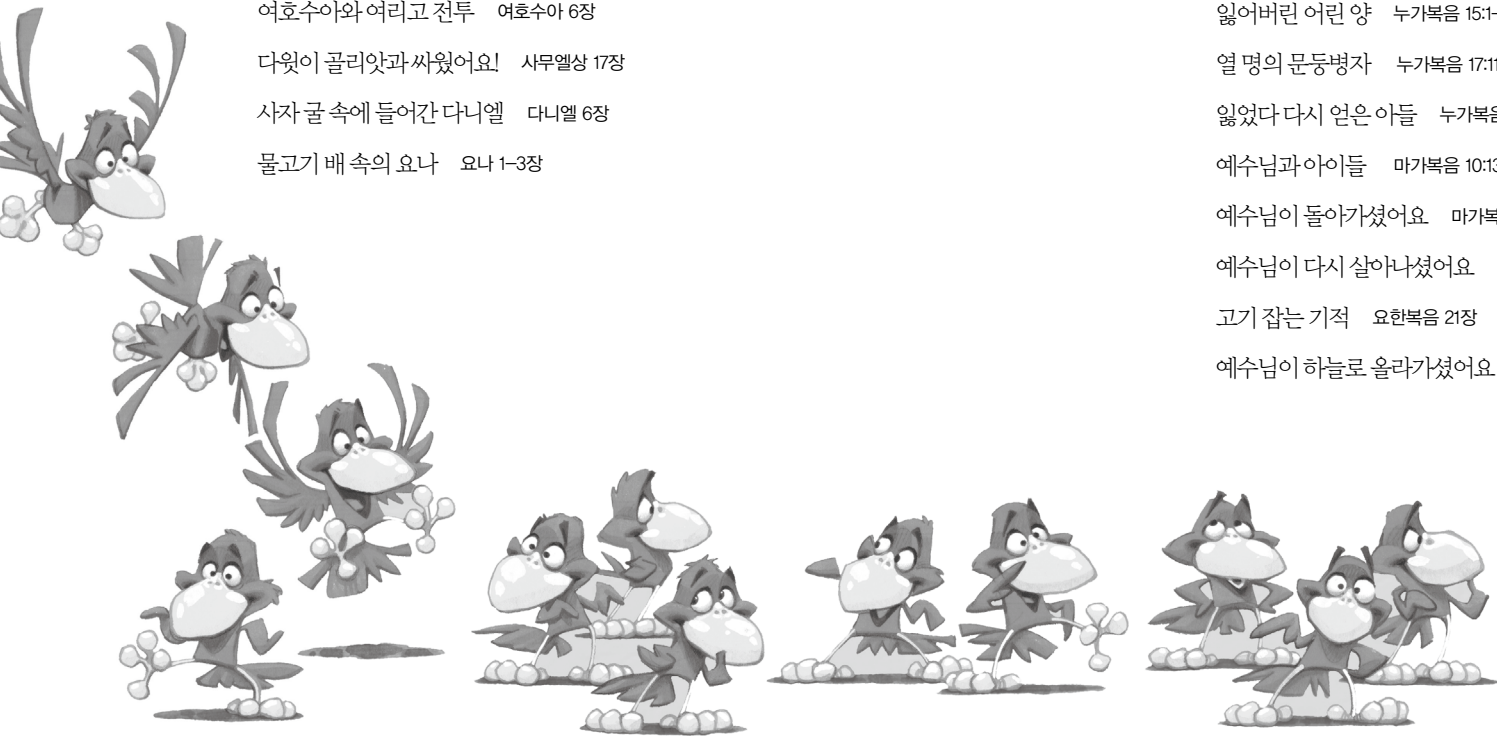
예수님과 아이들 마가복음 10:13-16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마가복음 14-15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고기 잡는 기적 요한복음 2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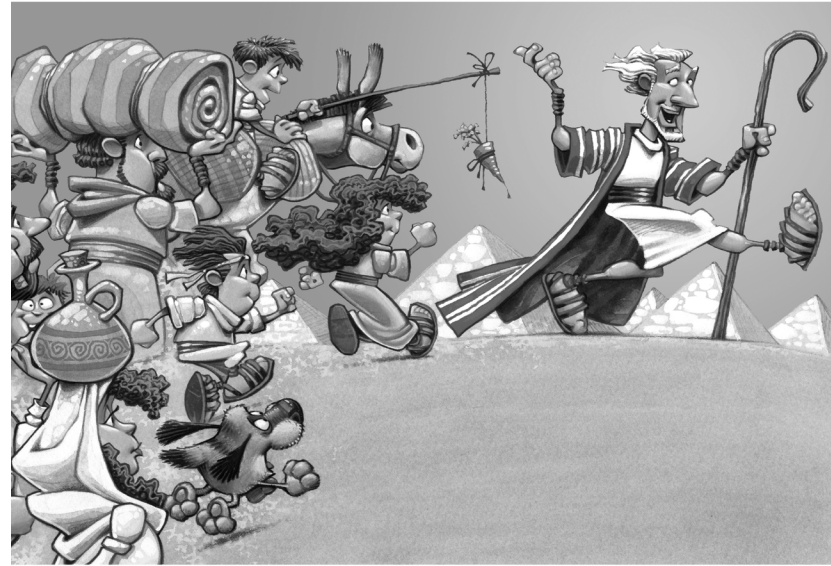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와! 성경이 살아 있다』는 생생하고 재미있는 그림으로 스몰네 편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림성경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만나 온 그림성경이 그림과 글이 있는 성경이었다면, 『와! 성경이 살아 있다』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그림으로만 구성된, 즉 그림으로 들려주는 성경입니다. 따라서 글을 배우지 않은 아이들도 성경 이야기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리북은 이 책을 보며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부모님이나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또한 오디오 성경이야기를 통해서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약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창세기 1:1-2:3

10-11쪽 맨 처음 세상이에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어둡고 깊은 물위를 다니셨어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맨 처음 세상은 어떠했을까?
맨 처음 세상에 누가 계셨지?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계셨단다.

12-13쪽 “빛이 생겨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반짝반짝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셨어요.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첫째 날이에요.
캄캄한 곳에 빛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있다가 “빛이 생겨라!” 하면서 떼어 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곧바로 빛이 생겨났단다.

14-15쪽 “물을 아래위로 갈라놓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출렁출렁 물이 위로 아래로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물과 물 사이의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어요.
둘째 날이에요.
물이 위아래로 갈라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렴. 어떤 소리가 났을까? 위에 물과 아래 물 사이에 나타난 하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6-17쪽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곳으로 모이고 물이 나오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어요.

“땅은 씨 있는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셋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향해 한곳으로 모이라고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
 네가 아는 나무와 꽃의 이름을 말해 보자. 나뭇가지에 열리는 열매는 뭐가 있을까? 냇굴에
 열리는 열매는 뭐가 있지? 땅속에서 열리는 열매는 뭐가 있을까? 계절마다 다른 꽃을 피우
 고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

18-19쪽 “빛아 나오너라! 하늘에서 땅을 비추어라!
 계절과 날과 해를 나누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과
 하루 이틀 사흘, 날과
 일 년 이 년 삼 년, 해가 나뉘었어요.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보자. 해가 뜨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또 달
 이 뜨면 어떻게 달라지니? 수많은 별들의 자리는 누가 정해 주신 걸까?

20-21쪽 “바다는 살아 있는 것으로 가득하여라!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첨벙첨벙 바다에 물고기들이 생겨났어요.
 푸드덕푸드덕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땅 위에 온갖 동물들이 생겨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커다란 동물, 작은 동물, 벌레들도 생겨났어요.
 다섯째 날이에요.
 알고 있는 물고기 이름을 말해 보자. 새들의 이름도 말해 보자. 동물들을 흉내 내 볼까? 어
 떤 소리를 내지? 물고기와 새, 땅 위의 모든 동물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

22-23쪽 “사람을 만들어서 온 세상 모든 것을 돌보게 하자!”
 하나님이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고, 여자의 이름은 하와예요.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매우 좋아하셨어요.
 여섯째 날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흙으로 특별하게 만드신 것은 뭐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2-3장

24-25쪽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동산의 모든 것은 마음껏 먹어도 된단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된단다.”
 에덴동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6-27쪽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을 돌보고 있어요.
 말과 사자가 사이좋은 친구예요.
 거북이, 너구리, 다람쥐와 스컹크도 사이좋게 지내요.
 그러던 어느 날,
 스르륵스르륵,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하와의 기분이 어땠을까?

28-29쪽 뱀이 하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에덴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하와가 말했어요.
 “아니야, 넌 죽지 않아.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정말? 그래도 될까? 맛있어 보이긴 해.”

뱀이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할 때 하와가 어떻게 말했어야 할까?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30-31쪽

특!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요.
 사각사각
 “와! 정말 맛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해 보렴. 무슨 색이었을까? 무슨 냄새가 날까? 맛은 또 어땠을까?

32-33쪽

“아담, 이 열매 같이 먹어요. 정말 맛있어요.”
 아담은 하와가 건넨 열매를 받아 함께 먹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먹고 나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머나, 우리가 벗고 있었네.”
 “아이, 부끄러워라.”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왜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꼈을까?

34-35쪽

“아담아, 하와야! 왜 숨어 있니?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 먹었구나.”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하와가 먹으라고 줘서 먹었어요.”
 아담이 말했어요.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뱀이 저를 속였어요.”
 하와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말씀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했지?

36-37쪽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도 나와야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잘못 선택하면 좋은 것을 망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창세기 6-9장

38-39쪽

똑딱똑딱 씹씩씹씩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아가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 있어요.
 무엇을 만드는 걸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내가 세상에 벌을 내려야겠다.
 너는 큰 배를 만들어라.
 비를 많이 내려서 이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무엇을 만들고 있지? 누가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지? 하나님은 왜 배를 만들라고 하셨지?

40쪽 “우하하하! 노아가 산에 배를 만들고 있어?”
“키득키득, 정말로 노아는 이상한 사람이야.”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41쪽 “여러분, 하나님이 곧 큰 비를 내리실 거예요. 그때 이 배에 타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거예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왜 노아를 놀렸을까? 놀리는 사람들에게 노아는 어떻게 했어?

42쪽 “우헤헤헤, 노아가 정말 미쳤나 봐.”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비가 온대. 웃기다 웃겨.”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43쪽 푹딱딱딱 영차영차
노아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열심히 배를 만들었어요.
기둥을 세우고, 벽을 붙이고, 지붕도 만들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사람들은 왜 또다시 노아를 놀렸지? 노아는 뭐라고 말했지?

44-45쪽 “네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모든 동물도 종류대로 한 쌍씩
들어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쿵쿵쿵 커다란 동물들이 한 쌍씩,
성큼성큼 키가 큰 동물들이 한 쌍씩,
폴짝폴짝 작은 동물들이 한 쌍씩,
모두 함께 방주로 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동물들의 이름을 말해 보자. 동물들이 방주까지 어
떻게 갔을지 흉내 내 볼까?

46-47쪽 쿵쿵쿵 둘씩 둘씩 사이좋게
뒤뚱뒤뚱 둘씩 둘씩 사이좋게
폴짝폴짝 둘씩 둘씩 사이좋게
모든 동물이 둘씩 둘씩 짝을 지어 방주로 가요.
여기에 없는 동물들을 말해 볼까? 동물 소리를 흉내 내 보자. 맨 앞에 생쥐 같은 이 동물은
뭘까? 아르마딜로라고 해.

48-49쪽 스르르 쿵!
방주의 문이 열렸어요.
둘씩 둘씩 짝을 지어 사이좋게 방주로 가요.
하나둘 하나둘
사이좋게 방주로 들어가요.
방주의 문은 하나뿐이야. 이렇게 많은 동물이 방주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50-51쪽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모두 방주에 타자 문이 닫혔어요.
우르르 쿵궤!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썩아아 썩아아
까만 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 밤, 두 밤, 세 밤, 네 밤….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어요.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산 위에 있던 방주가 물 위로 두둥실 떠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하늘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렴. 며칠 동안 비가 내렸지? 40일이 얼마나 되
는지 숫자를 세어 볼까?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누구일까?

52-53쪽 주룩주룩 온 세상이 물에 떠내려갔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주 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노아와 동물들은 안전해요.
방주 안은 어떻게 생겼지? 무엇이 생각나?

54쪽 뻘거덕
노아가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썩아아 썩아아
아직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55쪽 영차영차
방주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노아는 모든 동물을 빠짐없이 보살폈어요.
방주 안에서 동물들을 돌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무슨 음식을 줘야 할까?

56-57쪽 후드득후드득
빗소리가 작아지더니 비가 그쳤어요.
노아는 얼마나 물이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구나. 이제 땅이 많이 말랐나 보다.”
비가 많이 올 때와 그쳤을 때 하늘이 어떻게 다를까? 비가 그치고 노아가 밖으로 내보낸 동
물은 뭐야? 노아는 땅이 말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58-59쪽 노아와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렸
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어요.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무지개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홍수 속에서 살려 주셨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여 주신 것은 뭐였
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뭐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출애굽기 2-12장

60-61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어요.
어느 날 이집트 공주가 강가에 나왔다가 작은 바구니로 만든 배를
보았어요.
“어머나, 예쁜 아기가 있네.”
공주는 아기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구나. 너를 데려다가 키워야겠다.”

“공주님, 아기를 돌봐 줄 사람을 데려올까요?”
 풀 사이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아기의 누나가 말했어요.
 누나는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아기는 다시 엄마 젖을 먹으며 자라게 되었어요.
 이집트 왕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싫었을까? 엄마가 왜 아기를 바구니에 넣어 물에 띄웠을까? 바구니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나가 공주에게 데려간 사람은 누구지?

62-63쪽 아기가 젖을 먹지 않게 되었을 때 엄마는 아기를 공주에게 데려갔어요.
 “아가야, 너를 ‘모세’라고 불러야겠구나.”
 모세는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아장아장 성큼성큼 뚜벅뚜벅, 모세는 멋진 왕자님이 되었어요.
 ‘이집트 왕자가 되었지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모세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기 이름이 뭐지? 왜 ‘모세’라고 지었을까? 공주를 통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신 분은 누구일까요?

64-65쪽 **공공공**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어서 일하란 말이야. 일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구 때렸어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화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던 이집트 사람을 몰래 죽였어요.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자, 모세는 겁이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었지? 왜 모세가 화난 걸까?

66-67쪽 모세는 궁궐에서 멀리멀리 달아났어요.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양을 돌보며 지냈어요.
 일 년, 이 년, 삼 년, 사 년...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모세가 양을 돌보고 있을 때였어요.
 활활활
 “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잖아?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모세는 이상한 나무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어요.
 모세는 왜 도망쳤지? 모세가 양을 돌보다가 본 것은 뭐야? 불이 붙은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

68쪽 “모세야, 모세야!”
 불붙은 나무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너의 신발을 벗어라. 나는 하나님이라네.”
 모세는 겁이 나서 땅에 엎드렸어요.
 “이집트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너라.
 내가 내 백성을 좋은 땅으로 데려갈 거야.”
 잘못을 저지르고 멀리 도망친 모세를 누가 만나 주셨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지?

69쪽 뚜벅뚜벅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 왕에게 갔어요.
 “이집트에서 힘들게 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 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절대로 보낼 수 없다.”
 파라오 왕은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모세는 왜 파라오 왕을 찾아갔지? 파라오 왕은 뭐라고 대답했어?

70-71쪽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큰 벌을 내리셨어요.
 첫째, 강물이 피로 변했어요.
 “안 돼, 안 돼!”
 파라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둘째,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가 이집트 땅을 뒤덮었어요.
 “안 돼, 안 돼!”
 파라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셋째, 먼지가 이로 변해서 사람과 동물의 몸에 달라붙었어요.
 “안 돼, 안 돼!”
 파라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넷째, 셀 수 없이 많은 파리 떼가 나타났어요.
 “안 돼, 안 돼!”
 파라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다섯째,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이 모두 병들어 죽었어요.
 “안 돼, 안 돼!”
 파라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섯째, 이집트 사람과 동물의 몸에 피부병이 생겼어요.
 “안 돼, 안 돼!”
 파라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72-73쪽 일곱째, 하늘에서 돌맹이처럼 큰 우박이 내렸어요.
 “안 돼, 안 돼!”
 파라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덟째, 메뚜기 떼가 나타나 이집트 땅의 모든 것을 갉아먹었어요.
 “안 돼, 안 돼!”
 파라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아홉째, 3일 동안 온 이집트 땅이 캄캄했어요.
 “안 돼, 안 돼!”
 파라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 열째, 이집트 사람과 동물의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죽었어요.
 파라오의 큰아들도 죽었어요.
 파라오는 너무나 슬펐어요.
 “이집트에 더 큰 벌이 내리기 전에 어서 떠나라.”
 드디어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벌을 내리신 이유는 뭘까? 이집트에 어떤 벌을 내리셨지? 파라오는 어떻게 했지? 이집트에 벌이 내렸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어땠을까?

74-75쪽 영차영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을 싣어요.
 힘든 종살이가 이제야 끝난 거예요.
 하나둘 하나둘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해 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해 주신 분은 누구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해 주셨을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셨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삿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위대한 탈출 *출애굽기 14장

76-77쪽 두벽두벽 우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멈췄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출렁출렁 썩아아!
 “큰일 났어요. 우리 앞에 바다가 있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멈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

78-79쪽 다그닥다그닥
 “거기 서라! 어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라!”
 파라오 왕과 이집트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고 있어요.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고 후회했거든요.
 파라오 왕과 이집트 군인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온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온 걸까?

80-81쪽 “잡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있다.”
 이집트 군인들이 빠르게 쫓아왔어요.
 덜덜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서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네가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82-83쪽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모세야!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84-85쪽 “네, 하나님!” 모세는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휘잉 하고 바람이 불더니, 바닷물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와! 바닷물이 갈라지고 있어요.”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벽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86-87쪽 하나들 하나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라!”
 파라오 왕이 명령했어요.
 바다가 어떻게 되어 있니? 컵에 든 물을 따라 볼까?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물을 저렇게 멈추게 만드신 분은 누굴까?

88-89쪽 두벅두벅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거기 서라!”
 말을 탄 이집트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짝 뒤쫓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군인들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고 있는지 말해 보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90-91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다 건넜을 때였어요.
 출렁출렁 씩아아!
 “어? 바닷물이 움직인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던 이집트 군인들이 머리 위를 바라보았어요.
 “헉! 다시 바닷물이 모인다!”
 “이랴! 이랴! 빨리 도망가자!”
 이집트 군인들은 서둘러 말을 몰았어요.
 바다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지? 이집트 군인들은 왜 도망가려 하지?

92-93쪽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출렁출렁 씩아아!
 갈라졌던 바다가 ‘철썉’ 하고 다시 모였어요.

퐁딩퐁딩 꼬르륵꼬르륵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던 이집트 군인들은 모두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지?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94-95쪽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지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어요!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했지?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자!

40년 동안의 광야생활 *출애굽기 / 민수기 / 신명기

96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 광야에 왔어요.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땅이에요.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광야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솔솔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푸드덕푸드덕 메추라기를 보내 주셨어요.
 남남남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팔팔팔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솟어나게 하셨어요.
 벌컥벌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시원하게 먹이셨어요.

97쪽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적힌 돌판을 가져
 왔어요.
 산 아래에는 모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었어요.
 “우상에게 절을 하다니!”
 화가 난 모세가 돌판을 땅에 던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에 절한 것을 뉘우쳤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뱀이다! 도망가자!”
 독이 든 뱀이 나타나 하나님께 화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었어요.
 “긴 막대기에 걸린 뱀뱀을 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뱀을 본 사람마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궤에 넣은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늘 함께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의 다 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해요.
 하나님은 요단강도 바다처럼 갈라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가 보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보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광야에서 살 수 있었지?

여호수아와 여리고 전투 *여호수아 6장

98-99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에 도착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 성문을 굳게 닫았어요.
“성문을 굳게 닫았는데, 어떻게 여리고 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리고 사람들은 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갔을까?

100쪽 “여호수아야, 내가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01쪽 “7일째 되는 날에 여리고 성을 일곱 바퀴 돌고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길게 불 때 모든 백성이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튼튼한 건물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

102-103쪽 하나둘 하나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 주위를 돌기 시작했어요.
“싹! 싹!”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여섯째 날에도 한 바퀴씩 돌았어요.
여리고의 군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지?

104-105쪽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부터 여리고 성 주위를 돌고 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쉬지 않고 돌았어요.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세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림책의 여리고 성을 손가락 걸음으로 돌아보자.

106-107쪽 뽀우! 나팔을 길게 불었어요.
우지직 쿵!
여리고 성벽이 갈라지고 흔들렸어요.
나팔을 불자 여리고 성이 어떻게 달라졌지? 몸으로 여리고 성을 흉내 내 볼까?

108-109쪽 “와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소리쳤어요.
와르르 쿵!
크고 튼튼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어서 도망가자!”
여리고 성의 군인들이 놀라서 도망쳤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소리쳐 볼까?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되었지?

110-111쪽 “야!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과 창을 쓰지 않고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
 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여리고를 이겼지?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누구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사무엘상 17장

112-113쪽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우하하! 이 겁쟁이들아! 어서 나와서 나와 싸우자.”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나왔어요.
 “에고 무서워라. 골리앗은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는걸.”
 “헉! 저 목소리를 들어봐요. 등줄기에 땀이 나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바위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떨고 있지?
 114쪽 영차영차
 “나귀야, 어서 가자.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 줘야 해.”
 다윗은 아빠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가고 있었어요.
 “우하하하!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누구데?”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걸 들었어요.
 다윗이 왜 전쟁터에 왔지? 다윗은 왜 형들처럼 군인이 되지 못했을까?

115쪽 “우하하하! 이렇게 욕해도 싸우지 못하는 겁쟁이들아!”

골리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쳤어요.
 다윗은 화가 났어요.
 “저 사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있어요. 제가 저 사
 람과 싸우겠어요.”
 다윗은 왜 화가 났지?

116쪽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어요.”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들었어요.

117쪽 “애야! 너는 너무 어려. 저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야.”
 “아니에요. 제가 들에서 양을 돌볼 때 사자나 곰과 싸워 이겼는걸
 요. 제가 나가서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혼내 줄게요.”
 다윗은 걱정하는 사울 왕에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사울 왕은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게 막는 거야? 다윗은 왜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118-119쪽 “애야, 이 갑옷을 입고 싸우렴. 이 칼도 가져가라.”
 사울 왕의 갑옷은 어린 다윗에게 맞지 않았어요.
 칼도 너무 크고 무거워서 들기 힘들었어요.
 다윗은 갑옷을 벗고 칼과 창도 다 내려놓았어요.
 두벽두벽
 다윗은 늘 가지고 다니는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씩씩하게 걸
 어갔어요.
 사울 왕은 왜 다윗에게 갑옷과 칼을 주었을까? 사울 왕이 준 갑옷은 왜 다윗에게 맞지 않았지?

120-121쪽 “하나님,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윗은 언제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냇가로 가서 조약돌 다섯 개를 주웠어요.

싸우러 나가기 전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지? 뭐라고 기도했을까? 왜 다윗은 싸우러 가기 전에 조약돌을 주웠을까?

122-123쪽 뚜벅뚜벅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이 꼬맹이는 뭐냐? 나와 싸우려고 온 거냐?”
골리앗이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보았지만 다윗은 겁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용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124-125쪽 “어?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방패도 없잖아.”
골리앗은 어린 다윗이 싸우러 나온 게 기분 나빴어요.
“우하하하, 꼬맹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장난감 같은 것을 가지고 나온 거냐? 내가 오늘 너를 새와 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우하하하!”
골리앗은 다윗을 비웃으며 욕했어요.
골리앗은 왜 기분이 나빴을까?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 싸우러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까?

126-127쪽 “너는 큰 무기를 들고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다윗은 물매에 조약돌을 넣고 힘차게 돌렸어요.
윙윙윙 물매가 빠르게 돌아했어요.
“으흐흐흐! 꼬마야, 덤벼라!”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오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슈웅!
물매에 들어 있던 조약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혔어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갈 때 창과 칼 같은 무기 대신 무엇을 가져갔지?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지?

128-129쪽 파당! 거인 골리앗이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싸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해?

사자 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다니엘 6장

130-131쪽 “음, 무슨 일이지?”
다니엘은 벽에 붙인 왕의 명령을 읽었어요.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 굴에 들어갈 거라고 적혀 있어요.
“이번에는 다니엘을 꼭 혼내 줘시다.”
왕이 다니엘을 좋아하는 게 질투 난 신하들이 이 일을 꾸민 거예요.
다니엘은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군인은 누구의 명령을 벽에 붙였지? 뭐라고 적혀 있지? 신하들은 왜 다니엘을 싫어할까?

132-133쪽 “왕이 지나가신다. 어서 절해라.”
“사자 굴에 들어가기 싫으면 어서 앞드려라.”
다니엘을 싫어하는 신하들이 사나운 얼굴을 하고 말했어요.

으쓱으쓱 왕은 기분이 좋아서 우쭐대며 걸어갔어요.
 사람들은 무서워 덜덜 떨며 절했어요.
 사람들은 왜 무서워했을까? 사람들은 정말 왕을 사랑해서 절했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해?

134쪽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가는 다니엘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봅시다.”
 집으로 들어온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알았어요.
 집에 들어온 다니엘은 무엇을 했지? 왕이 내린 명령을 알면서 왜 그랬을까?

135쪽 “다니엘이 왕에게만 절하고 기도해야 하는 법을 어겼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붙잡히고 말았어요.
 다니엘이 왜 붙잡혔지?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될까?

136-137쪽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왕 앞으로 끌고 갔어요.
 “다니엘이 왕께만 기도해야 하는 법을 어겼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왕은 다니엘을 지켜 주고 싶었어요.
 “무얼 망설이십니까? 법을 어겼으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신하들은 계속해서 왕에게 말했어요.
 신하들이 다니엘을 왜 잡아갔지? 왕은 왜 걱정하는 걸까?

138-139쪽 “어서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으세요.”
 왕은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실 거야.”
 철경! 굴의 문이 열렸어요.

크르릉크르릉 어흥!
 굴 속에서 배고픈 사자의 소리가 들렸어요.
 힘센 군인이 다니엘을 사자 굴로 밀었어요.
 신하들의 계획대로 되었어요.
 ‘흐흐흐 좋아라!’
 신하들은 속으로 웃었어요.
 왕은 다니엘을 좋아하면서 왜 사자 굴에 넣으라고 했지? 신하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140쪽 “으아아악!”
 쿵! 다니엘은 군인들에게 밀려 사자 굴 속으로 떨어졌어요.
 굴 안은 어떻게 생겼지? 사자들의 모습도 살펴볼까?

141쪽 어슬렁어슬렁 사자들이 다니엘을 향해 다가왔어요.
 쿵쿵쿵 다니엘의 얼굴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날름날름 혀를 내밀고 입맛을 다셨어요.
 엉금엉금 소리 없이 다니엘에게 다가가는 배고픈 사자처럼 기어 보자. 다니엘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142-143쪽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사자의 밥이 되어도 하나님만이 저의 주님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췌췌!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배고픈 사자에 둘러싸인 다니엘은 무엇을 했지? 사자 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144쪽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에게서 보호해 주었어요.

145쪽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셨니?”
왕이 아침 일찍 다니엘을 찾아왔어요.
“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저를 지켜 주셨어요.”
다니엘은 이제 사자 굴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사자들은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왕에게 뭐라고 말했지? 다니엘을 지켜 주시고 배고픈 사자를 아침까지 편안하게
잠들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146-147쪽 “다니엘아, 어디 다친 곳은 없니?”
“네! 하나님이 조금도 다치지 않게 지켜 주셨어요.”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나왔어요.
“이제 우리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여봐라! 저기 나쁜 신하들을 당장 잡아 사자 굴 속에 넣도록 하여라.”
왕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한 종이를 다 떼어 버리게 했어요.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도와주세요.
다니엘이 굴 밖으로 나온 뒤 어떤 일이 있었지? 왕은 어떤 명령을 내렸지? 다니엘이 어렵
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보자.

물고기 배 속의 요나 *요나 1-3장

148-149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요나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요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지? 요나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150쪽 “요나야, 니스웨로 가거라.
니스웨 사람들이 나쁜 일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큰 벌을 내릴 거라
고 전하거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어디지? 그곳에 가서 전해야 할 말씀은 뭐야?

151쪽 ‘니스웨는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나쁜 나라야. 그 사람들이 벌 받게
내버려 두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요나는 짐을 싸서 떠났어요.
요나가 니스웨를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 요나가 속으로 바라는 것은 뭐야?

152-153쪽 두뼉두뼉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스웨로 가지 않았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잘됐다! 저 배를 타고 멀리멀리
가야지.”
요나는 니스웨와 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요나는 니스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지? 요나가 무얼 잘못했다고 생각해?

154-155쪽 배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늘에 까만 구름이 생기기 시작
했어요.
휘이잉 큰 바람이 불더니
출렁출렁 파도가 높아지고 뻘뻘뻘 배가 몹시 흔들렸어요.
“큰일 났어요. 태풍이 불어서 배가 가라앉을 거 같아요.”
“까악!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왔어요. 이리다 모두 죽을 거 같아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동안,
 배 밑에서 한가하게 자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가 탄 배에 무슨 일이 생겼지?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는 이유는 뭘까? 배 밑
 에서 자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156쪽 “어서 일어나세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요나가 졸린 눈으로 일어났어요.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우리 모두 죽게 되었다고요.”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알아봐야겠어요.”

157쪽 “저, 사실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 때문이라고요?”
 요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무슨 말을 했지? 요나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158-159쪽 휘잉 철썩! “이러다 배가 뒤집혀서 모두 죽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시다.”
 풍덩!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꼬르륵꼬르륵 물속으로 가라앉던 요나의 눈이 커졌어요.
 보글보글 커다란 물방울이 보이더니
 엄청나게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났어요.
 요나는 어떻게 되었지? 요나가 바닷속에서 본 건 뭐지? 커다란 물고기는 왜 나타난 걸까?

160-161쪽 꿀꺽!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요나는 어떻게 되었지?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얼마나 컸을까?

162쪽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요나는 커다란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나는 삼 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했지?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건 뭐지?

163쪽 푸우! 갑자기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뱉었어요.

164-165쪽 “으악!!”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바닷가에 떨어졌어요.
 물고기 입에서 튀어나온 요나는 데굴데굴 굴렀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숨 쉬었을까? 왜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 냈을까?

166쪽 커다란 물고기는 요나를 니느웨로 가는 길에 뱉어 놓고 다시 깊은
 바다로 돌아갔어요.

167쪽 그때 다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거라. 그곳에 내 말을 전해라.”
 “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바라시는 게 뭐지? 이번에 요나는 뭐라고 대답했지?

168-169쪽 “잘못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니느웨에 큰 벌을 내리실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를 하루 종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예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뭐라고 말했지?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약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72-173쪽 다그탁다그탁

한밤중에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마리아는 이제 곧 아기를 낳게 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가고 있지?

174-175쪽 늦은 밤, 요셉은 잠잘 곳을 구하러 다녔어요.

똑똑똑 “빈 방이 있나요?”
“방이 없네요. 오늘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똑똑똑 “빈 방이 있나요?”
“빈 방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똑똑똑 “빈 방이 있나요?”
“빈 방이 없어요. 벌써 방이 다 찼어요.”
똑똑똑 “빈 방이 있나요?”
“빈 방이 없어요. 다른 데 가보시오.”
요셉은 왜 방을 구하지 못하고 있지?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176쪽 똑똑똑 “빈 방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
똑똑똑 “빈 방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
여관집 주인들이 왜 요셉에게 방을 빌려 주지 않지?

177쪽

“빈 방이 있나요?”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거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런, 방이 없는데…. 혹시 저기라도 괜찮으면 하룻밤 지내시오.”
요셉이 급하게 방을 구하는 이유는 뭐지?

178-179쪽 마리아와 요셉은 여관집 주인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어요.
“마구간이라도 괜찮으면 여기서 하룻밤 지내시오.”
마리아와 요셉은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관집 주인이 보여 준 곳은 어디지? 왜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에서 자기로 한 걸까?

180-181쪽 “요셉, 아기가 나오려는 거 같아요.”
요셉은 마른 지푸라기를 깔고 마리아가 누울 수 있게 했어요.
“마리아, 힘을 내요. 조금만 참아요.”
높은 하늘에 커다란 별이 나타나 반짝반짝 빛을 내며 마구간을 비추었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예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곳은 어디지? 태어난 아기가 누구인지 아니? 마구간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었을까? 무슨 냄새가 났을까? 네 방이랑 무엇이 다를까?

182-183쪽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들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타닥타닥 목자들은 모닥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오늘 밤은 정말 조용하군.”
“평화로운 밤이야.”
들에는 누가 있었지? 무엇을 하고 있었지?

184-185쪽 갑자기 큰 빛이 비추더니 목자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깜짝 놀란 목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놀라지 말아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들판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 준 소식은 뭐지?

186-187쪽 “베들레헴에서 여러분을 구해 주실 분이 태어나셨어요.
어서 가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를 만나 보세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떠나갔어요.
“우리 어서 가서 천사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봅시다!”
목자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떠났어요.
천사는 목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 주었지?

188-189쪽 영차영차 목자들이 마구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기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우와, 천사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었어.”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께 절하자.”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어요.
목자들이 마구간에서 본 것은 뭐였지?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지?

190-191쪽 방긋방긋, 꿈지락꿈지락, 엉금엉금, 아장아장
아기 예수님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키가 자라는 것처럼 지해도 쑥쑥 자랐어요.
뚜벅뚜벅 큰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쪽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예요.
“저렇게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면 새 왕이 태어나신 게 분명해.”
“저 별을 따라가면 새 왕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큰 별이 베들레헴을 향해 움직이더니 어느 집 위에 멈추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 훑내 내 보렴. 동쪽 나라의 박사들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이지? 별이 멈춘 곳은 누구의 집일까?

192-193쪽 푹푹푹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마리아와 요셉은 문을 열고 처음 보는 손님을 맞이했어요.
문을 두드린 사람이 누굴까?

194-195쪽 “우리는 동쪽 나라에서 큰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새 왕을 위해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받아 주세요.”
동쪽 나라에서 온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모두 왕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박사들을 데려온 별은 누가 보낸 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무럭무럭 자라셨어요 *누가복음 2:52

196-197쪽 아장아장 아기 예수님이
성큼성큼 어린이가 되었어요.
뚜벅뚜벅 청소년이 되었어요.
씩씩한 청년이 되었어요.
멋진 어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키와 지혜를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 몸으로 표현해 보렴.

198-199쪽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셨어요.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도 우리처럼 자라서 어른이 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닮은 점은 뭘까? 또 다른 점은 뭘까?

요한이 세례를 주었어요 *마가복음 1장

200-201쪽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뚜벅뚜벅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셨어요.
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 예수님이 강가로 오신 이유는 뭘까?

202-203쪽 “내게도 세례를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잖아!”
요한은 한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

204-205쪽 철썩철썩 예수님이 강물로 내려오셨어요.
“아니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요한이 놀라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했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지?

206-207쪽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자,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빛이 비추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지?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지?

예수님의 생애 *마태복음-마가복음-누가복음-요한복음

208-209쪽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림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해 보자.

210-211쪽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외로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친구를 사랑하는 너희들의 믿음이 크구나.”
예수님께 아픈 친구를 데려오려고 지붕을 뚫은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내가 주는 생명의 물을 마셔라. 내가 생명의 물이란단다.”

외로운 우물가의 여자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은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아픈 사람을 고치셨어요. 또 놀라운 일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볼까?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볼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지?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12-213쪽 “건너편 마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제자들이 배를 띄울 준비를 했어요.
드르륵드르륵 닻을 올렸어요.
필릭필릭 돛을 폈어요.
영차영차 배를 밀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가시지? 배가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14-215쪽 동실동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바다 위를 가고 있어요.
“하하하,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예수님.”
“그렇구나. 아함! 나는 피곤해서 조금 자야겠구나.”
예수님은 배의 뒤쪽에서 잠이 드셨어요.
배가 출발할 때 날씨가 어땠지? 바다의 풍경을 상상해 봐. 예수님은 무얼 하셨어요?

216-217쪽 동실동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까만 구름이 끼더니 잔잔하던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뽕뽕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높아졌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크게 흔들렸어요.
 날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볼까?

218-219쪽 우르릉 쿵쿵! 천둥번개가 쳤어요.
 철썩철썩 커다란 파도가 배를 삼킬듯이 높아졌어요.
 뽕뽕 세찬 바람에 돛이 찢어졌어요.
 기우뚱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았어요.
 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220-221쪽 “배에 물이 들어온다. 어서 물을 퍼내자.”
 “꼭 잡아요. 바다로 떨어지겠어요.”
 깜짝 놀란 제자들은 배를 지키기 위해 힘썼어요.
 하지만 폭풍은 점점 세졌어요.
 쿵쿵 예수님은 여전히 잠자고 계셨어요.
 폭풍을 만난 배는 어떨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무얼 하고 계셨지?

222-223쪽 폭풍이 더 심해지자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예수님, 예수님! 폭풍에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어서 일어나세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작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224-225쪽 “바람아, 그쳐라! 파도야, 잠잠하여라!”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나운 바람이 멈추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226-227쪽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 예수님은 누구실까?”
 소곤소곤 제자들은 깜짝 놀라 서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사나운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사나운 바람과 거친 파도가 잠잠해진 이유를 알 수 있겠지?

착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25-37

228-229쪽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쭙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여라.”
 “누가 저의 이웃인가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사람이 여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님께 무엇을 여쭙봤지?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

230-231쪽 퍽! 으악!
 강도들은 길을 가던 사람을 때리고 옷과 가방, 가진 물건을 다 빼
 앗았어요.
 “공공공, 살려 주세요.”
 강도들은 심하게 다친 사람을 버려두고 가 버렸어요.
 강도들이 길 가던 사람에게 어떻게 했지? 다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232-233쪽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돕는 사람이예요.
많은 사람이 제사장을 높이고 좋아했어요.
“공공공, 살려 주세요.”
“어? 누가 많이 다쳤군.”
제사장은 다른 길로 가 버렸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이 오고 있어요.
“공공공, 살려 주세요.”
“어? 많이 다친 거 같은데 어찌지?”
제사장이 다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지? 왜 그랬을 거 같아?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한
다고 생각해?

234-235쪽 “난 지금 바쁘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야.”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누군가 또 오고 있어요.
여행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싫어했어요.
“공공공, 살려 주세요.”
“어? 사람이 많이 다쳤네.”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 앞에 멈추었어요.
레위 사람은 무슨 핑계로 그냥 지나갔지? 누가 아픈 사람 앞에 멈춰?

236-237쪽 “많이 아프지요? 제가 도와줄게요. 힘을 내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마실 것도 주었어요.
“제 나귀를 태워 드릴게요.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착한 친구가 되어야 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지?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인 거 같아?

잃어버린 어린 양 *누가복음 15:1-7

238-239쪽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었단다.”
매에 매에
“하나, 둘, 셋, 넷...아흔여덟, 아흔아홉, 백!!”
목자는 매일매일 양을 세었어요.
너도 양 100마리를 셀 수 있니?

240-241쪽 하나, 둘, 셋, 넷...
어느 날 목자가 양의 수를 세고 있을 때, 한 마리가 다른 곳으로 가
고 말았어요.
“어? 한 마리가 없잖아?”
목자는 깜짝 놀랐어요.
“워이, 애들아, 여기 잘 있어라. 잃은 양을 찾아올게.”
목자는 남은 양들을 우리에게 잘 넣었어요.
목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고 목자는 어떻게 했어?

242-243쪽 목자는 이쪽저쪽 바라보고,
휘익 휘파람도 불어요.
“혹시나 양이 다친 것은 아닐까? 애야, 어딴니?”
소리쳐 불러요.
바위 사이에 끼었나? 길을 잃었나?
목자는 쉬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녔어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았을지 흉내 내 보자.

244-245쪽 별이 반짝이는 밤이 되었어요.
 “어? 여기가 어디지? 무서워!”
 신나게 놀던 양도 밤이 되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목자 아저씨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우 어우 사나운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으악, 나 살려라! 매,”
 “아니, 이 소리는 양의 울음소리잖아?”
 목자는 양의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어요.
 양이 무서워하는 동물 소리를 흉내 내 보자.

246-247쪽 “애야, 어딴니?”
 “매, 목자 아저씨!!”
 드디어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목자가 양을 찾을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뭘까?

248-249쪽 “애들아, 다 같이 즐거워하자. 잃은 양을 찾았단다.”
 목자와 양들은 모두 모두 기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뻐해요.
 하나님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일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열 명의 문둥병자 *누가복음 17:11-19

250-251쪽 굶적굶적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가족도 친구도 만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거든요.
 사람들은 아픈 몸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일 거 같아?

252-253쪽 문둥병은 무서운 병이에요.
 이가 뽑히고 몸이 녹아 없어져요.
 손과 팔다리, 눈코입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몸과 마음이 몹시 괴로워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자.

254-255쪽 뚜벅뚜벅
 “무슨 소리지? 누가 오나 봐.”
 “여긴 아무도 안 오는데, 누굴까?”
 “어? 나 저분 알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신다!”
 누가 이 사람들에게 오고 있지?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을 찾아가셨을까?

256-257쪽 “예수님, 저희를 불쌍하게 봐 주세요!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매달렸어요.
 “저기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 주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했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258-259쪽 “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 몸을 보여 주자.”
영차영차 사람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성전으로 뛰어갔어요.
사람들은 왜 뛰어갔을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 거 같아?

260-261쪽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성전으로 뛰어갔어요.
걸어갈 수 없는 사람도 함께 데려갔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빨리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주고 싶었어요.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주러 가는 걸까?

262-263쪽 열심히 뛰던 사람들은 갑자기 몸이 이상해진 걸 느꼈어요.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우와! 내 손가락이 다시 생겼네?”
“앞이 보여!”
“이것 봐, 가려운 게 다 없어졌어.”
병이 나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 한참 동안 어리둥절했어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264쪽 “우와! 만세! 우리 병이 다 나았다! 만세!”
병이 나은 사람들은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자, 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가 나았다는 것을 보여 주자.”
“그래, 어서 가자! 이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

265쪽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뛰어갈 때 걸음을 멈춘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를 고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셔!”
열 사람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병이 나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한 사람은 왜 멈춘 거야?

266-267쪽 아홉 사람이 성전을 향해 뛰어갈 때,
한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제 몸을 고쳐 주셔서 감사해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단다.”
예수님은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한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유는 뭐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우리도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게 있는지 생각해 보고 감사드리는 사람이 되자.

잃었다 다시 얻은 아들 *누가복음 15:11-32

268-269쪽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사는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 보렴.

270-271쪽 아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저기 큰 마을에 가서 살고 싶어요. 제가 받을 돈을 주세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은 뭐야?

272-273쪽 아버지는 아들에게 줄 돈을 가져왔어요.
“얘야, 이것이 네가 받을 돈이란다.”
“우와! 고마워요, 아버지!”
다그닥다그닥 아들은 곧장 집을 싸서 떠났어요.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어떻게 했지? 그때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274쪽 “애야, 몸조심해라. 네가 보고 싶을 거야.”
아버지는 멀리 사라지는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275쪽 “이랴! 어서 큰 마을로 가 보자!”
멀리 커다란 성이 보였어요.
“저기에 가면 정말 재미난 것들이 많을 거야. 신난다. 히히히!”
아들은 성을 향해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왜 울었을까? 아들은 어디를 가고 있지?

276-277쪽 “우와! 만세! 역시 내가 살던 시골과 다르구나. 오길 정말 잘했어.”
아들은 신나게 놀고 싶은 마음에 몹시 기뻐했어요.
“나와 함께 놀아 봅시다. 여기 돈도 아주 많아요.”
아들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큰 성은 아들이 살던 아버지 집과 무엇이 다르지?

278-279쪽 땡그랑땡그랑 아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요.
“이 모자 정말 맘에 드네. 자네들도 하나씩 사 줄게. 여기 돈 받으세요.”
“우와, 역시 자네는 멋쟁이야. 최고야, 최고!”
사람들은 돈이 많은 아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로 칭찬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어떻게 쓰고 있지? 함께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

280-281쪽 땡그랑땡그랑 아들은 계속해서 돈을 꺼내 썼어요.
“이것 좀 주세요.”
“와, 이거 정말 재미있군. 이것도 다 주세요. 난 돈이 아주 많아요.”
아들은 돈을 함부로 썼어요.
아들의 돈 주머니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282-283쪽 “맛있는 것 더 주세요. 여기 돈 있어요.”
땡그랑땡그랑 아들은 주머니 속에서 돈을 꺼냈어요.
“이 친구 정말 멋져! 최고야!”
아들은 또다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고 했어요.
“어? 돈이 없네.”
“이 친구 이제 빈털터리가 된 거야?”
그러자 같이 놀던 친구들이 순식간에 모두 사라졌어요.
아들의 돈주머니가 어떻게 되었지? 성에서 만난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

284-285쪽 돈이 없는 아들은 더 이상 성에서 살 수 없었어요.
터벅터벅 아들은 성을 나와 들판으로 갔어요.
꼬르륵꼬르륵 뱃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 배고파. 돼지농장?”
돈이 떨어진 아들은 어떻게 되었지?

286-287쪽 “주인님, 제가 먹이 주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배고픈 아들은 돼지농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야, 똑바로 못해?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해!”
주인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일만 시켰어요.
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지?

288-289쪽 아들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살 수 없었어요.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 아버지가 주신 돈을 헛되게 써 버렸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들은 몹시 후회했어요.
“그래, 아버지께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자. 나를 일꾼으로 반
아 달라고 말씀드려야지.”
아들은 그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들은 누가 생각났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었어?

290-291쪽 “어? 저 아이는?”
밭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모습이 많이 달라졌지만,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을 알아봤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로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려 왔거든요.
아들을 먼저 발견한 사람은 누구지?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알아봤을까?

292-293쪽 “애야, 어서 오너라.”
아버지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애야, 무사했구나. 많이 보고 싶었단다.”
“아버지,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버지의 종이 될게요.”
아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지?

294-295쪽 “하하하, 벌써 용서했단다. 네가 돌아와서 난 정말 기쁘구나!”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안아 주었어요.
용서받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지? 왜 용서해 준 거라고 생각해?

예수님과 아이들 *마가복음 10:13-16

296-297쪽 “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어.”
“췌! 조용히 해, 혼날지도 몰라.”
살금살금 아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어요.
아이들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했지? 왜 그랬을까?

298-299쪽 시골시골 어른들은 이야기하느라 아이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애들아, 이리 오렴.”
예수님은 왜 아이들을 부르셨을까?

300-301쪽 “우와! 예수님이 부르신다.”
“야호! 신난다!!”
폴짝폴짝 아이들은 신이 나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불러 주셨을 때 아이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302-303쪽 “예수님, 사랑해요!”
“하하하,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란단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네게도 “사랑해!”라고 말씀하셔. 우리도
아이들처럼 고백해 보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마가복음 14-15장

- 304-305쪽**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괴로워요.”
예수님은 죄로 죽게 된 우리를 구하기 위해 대신 벌을 받으셔야 해요.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셨지? 예수님은 괴로운 마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셨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306-307쪽** 뚜벅뚜벅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버렸어요.
“나를 잡으러 왔구나!”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무엇을 들고 왔지? 왜 그렇게 하고 왔을까?
- 308-309쪽**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예수님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스스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잡혀 가셨어요.
예수님은 왜 스스로 잡히셨을까?
- 310쪽**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군인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어요.
“유대인의 왕 만세! 크크크!”
예수님을 놀리면서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어요.

- 311쪽**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어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쳤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보자.
- 312-313쪽** 팡! 팡! 팡!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려고 모든 고통을 참으셨어요.
막대기에 손가락을 콕 찌르면 얼마나 아플까? 예수님이 당한 아픔을 상상할 수 있겠어?
- 314-315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의 양옆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잘못 때문에 벌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옆에 있는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어떻게 다르지?
- 316-317쪽**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걸까?

318-319쪽 “제가 예수님을 모시게 해주세요.”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가 말했어요.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흰 천으로 쌌어요.
 그리고 준비한 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은 몹시 슬펐어요.
 누가 예수님을 모셔 갔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320-321쪽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새 무덤에 모셨어요.
 그리고 커다란 바위로 무덤을 막았어요.
 사람들은 몹시 슬퍼하며 마을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셨지?

322-323쪽 “누구든 이곳으로 오지 못해!”
 군인들이 남아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군인들은 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걸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324-325쪽 “으악! 무서워! 도망가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있어요.
 군인들이 왜 그렇게 놀랐을까?

326-327쪽 짜잔!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겼어요.
 무덤 안에는 예수님을 쌌던 천이 있었어요.
 이제 군인들이 왜 놀랐는지 알 것 같아?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림을 잘 살펴보고 이야기해 보렴.

328-329쪽 아침 일찍,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몸에 향기 나는 기름을 바르기 위해 온 거예요.
 “어머나,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우리 예수님을 누가 데려갔을까요?”
 여자들은 무덤에서 무엇을 봤지? 빈 무덤을 본 여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330-331쪽 “예수님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때 누군가 여자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모두 잘 있었니? 무서워하지 마. 나란다.”
 “우와! 예수님! 정말 우리 예수님이시군요!”
 “마을로 내려가서 지금 본 일을 전해 주어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은 뭐지?

고기 잡는 기적 *요한복음 21장

332-333쪽 영차영차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보시오,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소?”
누군가 물었어요.
“휴, 어찌 된 일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고향으로 돌아왔을까?

334-335쪽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 보시오.”
물가에 있는 사람이 말했어요.
“그물을 여기저기 다 던져 봐도 물고기가 없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누구지?”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물가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336-337쪽 “저 사람 말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보자.”
하나, 둘, 셋!
제자들이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지?

338-339쪽 와글와글 물고기들이 그물을 향해 몰려왔어요.
더 이상 물고기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물이 가득 찼어요.
어떻게 많은 물고기가 모이게 되었을까?

340-341쪽 “어? 그물이 너무 무거워! 도와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물이 찢어질 거 같아.”
“이러다 배가 뒤집힐지도 몰라.”
“아! 예수님이다.”
제자들은 물가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지? 이런 일을 하신 분은 누굴까?

342-343쪽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단다. 함께 먹자.”
예수님이 물고기와 빵으로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아무도 “누구세요?” 하고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인 걸 잘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344-345쪽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실 거야.”
“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군요.”
“너희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를 전해 주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뭐였어?

346-347쪽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어? 예수님의 몸이 올라가고 있어.”
 예수님의 몸이 하늘을 향해 점 점 점 더 높이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나 봐.”
 맞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어?

348-349쪽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
 놀란 제자들은 꿈쩍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되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언젠가 꼭 다시 오신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지? 천사가 뭐라고 말해 주었어?

350-351쪽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지?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너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